

- 선 언 문 -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지난 1995년 6월 26일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마지막주를 동성애자 인권주간으로 선포하며 동성애자로서의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때 했던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1/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인격적 모독과 비난을 중지하고, 우리가 가진 성적 지향성을 해악시하고 부정하는 모든 의학적·법률적·교육적 관행을 중단하라.
- 2/ 언론매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그간의 보도관행을 반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 3/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밝힌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경제적 권리의 침해와 모욕을 중지하라.
- 4/ AIDS를 동성애자의 역병으로 호도하는 사이버 의학적 선전을 중단하고, AIDS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사회적 방역체계에서 동성애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규제하여온 그간의 시도를 중단하라.
- 5/ 동성애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이후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보였다. 당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4개의 모임이 모여서 만들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23개의 모임 - 친구사이, 끼리끼리, 사포, 하이델 포사포, 천리안 퀴어넷, 나우누리 레인보우, 서울대 마을 003, 연대 컴투게더, 고대 사람과 사람, 충북대 동일인, 국민대 모임, 외대 만, 시립대 레스보스, 건국대 화랑, 이반 기독교인 모임, 친구사이 153, 대경회, 퀴어 팝 팩토리 등)이 만들어져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성애를 상관계로만 인식되도록 하는 '동성애 연애자'라는 단어를 '동성애자'라는 단어로 바꾸려는 우리들의 의식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언론에서도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늘고 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러 강연과 토론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넘어서려는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전사회적으로 볼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을 부정하고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침묵은 아직 지배적이다. 또한 정상적인 이성에 이외의 다른 성적 지향성은 변태이고 도덕이며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구사회에서나 존재하고 그곳에서 유행하는 문화로서만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현실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학교의 공식교육상에서 '성'은 금지의 영역이었다. 여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생리 등의 2차성징에 대한 간략한 성교육을 제외하면 성은 무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이 강요되었고,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성지식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그 통로라는 것들이 대부분 대중언론이나 여러 성인지 등의 상업적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문제점은 누구라도 인지할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식교육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반영으로 교과서에서도 나름의 노력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우려할만 하다. 성교육은 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성이 더 이상 은밀한 영역 속에서 음담패설과 폭력의 대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 속에서 우리 삶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성교육은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학교 교과서인 '성과 행복', 고등학교 교과서인 '교련'상의, 동성애자와 AIDS에 대한 왜곡과 편견에 가득찬 부분이다.

가장 민감하고 고민이 많은, 특히 자신의 동성애 성향에 대하여 불안감, 죄책감 등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더욱더 현실에 대하여 비관적일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학교의 교재에 동성애는 성도착증이나 에이즈의 주범이니 하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담은 것은 동성애서 청소년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만들 뿐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이나 단체에서도 동성애의 기본적 지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동성애는 나쁜 병이니 하지 말라는 식의 상담만을 함으로써 역효과를 내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동성애자 청소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줄 수는 없다. 이에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잘못된 교과서의 개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새로운 삶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차이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갈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중·고등학교 교과서상의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여러각도에서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동성애의 경우 1973년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더 이상 정신이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는 내용을 첨가하라.
2. 성적 지향성에의 고민은 2차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를 겪게 되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에 성에 대해 무지 또는 언론 등에 의한 왜곡된 지식만을 갖도록 강요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받고 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문적 상담원을 양성·배치하라.
3. AIDS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고 동성애자들 때문에 전염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아울러 AIDS는 당사자 개인의 부도성에 의한 '벌'이 아니라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우리모두의 질병임을 명확히 하고, AIDS 보균자 및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생활지도와 과외활동

원생들이 일상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소년원장은 그들 생활을 규칙적으로 이끌고, 자기훈련을 증진시키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소년원법 40조)

도덕성정화를 위한 지도

소년원은 원생들이 일상 사회생활에 복귀할 재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이스카우트 야영캠프, 역사유적 탐방, 문학경연대회, 예절, 컴퓨터 교실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이코드라마, 단학훈련, 감성훈련, 정신통제와 같은 심리치료방법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질문 35.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50조는 최저고용연령을 제시하고 있고, 13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보다 2살 낮은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15세 미만의 누구도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연령기준에 대하여 어떤 문제도 제기된바가 거의 없다.

더우기, 국제노동기구 138번 조약 3조에서 규정된 연소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생명에 해로운 노동에 관한 18세 최소고용연령기준은 한국의 근로기준법 51조와 일치한다.

근로기준법 50조는 곧 있을 노동법 전면개정의 일부로서 개정될 것이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 138번 조약의 비준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개정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확정적인 시기는 이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다.

1.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2.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3.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1.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2.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3.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1.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2.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3. 1988년 10월 10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